

한국천주교회의 두 기둥 김대건·최양업 신부님

올해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선포와 김대건 신부님이 유네스코 세계기념 인물로 선정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희년을 지내는 동안 하느님을 사랑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같은 해에 태어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모범을 본받아 두 분의 영성을 우리 삶에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가톨릭 성가 291번에는 “교회의 반석 성 베드로와 선교의 주보 성 바오로는 신앙을 위해 순교하시고 승리의 관을 받으셨도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교회의 두 기둥에 베드로·바오로 사도가 계시다면, 한국교회에도 두 대들보 김대건·최양업 신부님이 계십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한국의 첫 사제로서 ‘피의 순교’로 한국교회의 제대를 축성해주셨고, 최양업 신부님은 11년 6개월간의 사목 생활인 ‘땀의 순교’로 선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1821년에 태어나서 15살 소년의 나이로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나셨습니다. 신사(辛巳, 1821년 흰뱀白蛇띠의 해)년 3월 1일이 최양업 신부님의 생일이고, 8월 21일이 김대건 신부님의 생일이므로 동갑이지만 최양업 신부님이 조금 더 형이었겠지요.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에 의하면 이 둘은 먼 친척이 됩니다. “이존창의 집안이 처음에는 모르고서 가짜 사제를 냈으나 나중에는 진짜 사제를 내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그의 딸 이 멜라니아는 김 안드레아 신부의 조모이고 이(성례) 마리아는 이존창의 사촌 누이 멜라니아의 조카딸입니다.”(1851.10.15.편지)

위의 인용문 중에서 ‘가짜 사제’란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가성직제도’를 가리키는데, 이존창은 내포 지역에서 성직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최양업 신부님과 김대건 신부님 모두 어머니 쪽으로 ‘하느님의 종’ 이존창과 연결됩니다.

이 뜻깊은 해에 두 분 삶의 중요한 대목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지내보고자 합니다. 두 분의 삶은 그 이름에서도 드러

납니다.

김대건(大建)은 ‘크게 세우다’는 뜻으로 첫 사제로서 선교사들의 바닷길을 개척하고 자신은 순교로 한국교회를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우셨으니, 정말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을 생각하며 앞으로 묵상할 주제는 적응, 성장통, 여행(모험), 용덕, 순교입니다.

최양업(良業)은 서품 후 국내에 들어오셔서 11년 6개월 동안은 발로 뛰며 선교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목 생활 자체가 참으로 말 그대로 ‘선한 업적’이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할 주제는 성실함, 배려, 열정, 성사, 최선을 다함입니다.

우리는 올 한해 무엇을 세울 것이며, 어떠한 업적을 남길지 생각해 봅시다. 13개월간 사제생활을 했던 26세 청년 김대건의 마지막 소망을 되새겨봅시다.

“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형제 토마스,
잘 있게. 천당에서 다시 만나세.
나의 어머니 (고) 우르술라를
특별히 돌보아 주도록 부탁하네.
저는 그리스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묵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형벌을 끝까지 이겨낼 힘을
저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감옥에서 쓴 라틴어 친필 서한 중 마지막 대목 —

”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